

죽고 사는 것도 다 근본저리에 놓고 믿어 보십시오

25면에서 계속

예를 들어 누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못 잊어서 참 애쓰기에 그 가족 과거를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참 착하더라면 말이죠. 산 지식들도 착하고 그분도 착하더라 이거죠. 그러면 착한 것만 아는 게 아니죠. 그분을 만 명으로도 만들어 놓을 수 있고 또 천 명으로도 만들어 놓을 수 있고 세 명으로도 만들어 놓을 수 있고 한 명으로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을 그 집애다가 세워 놓고 그 집을 위해서 심부름하게끔 하기 위해서죠. 살아서도 지식들을 위해서 심부름을 했는데 죽어서도 모습 없는 모습으로서의 그 마음을 심부름하게끔 할 수 있는 거죠. 요걸 잘 들으세요. 그 아버지가 착하니까 내 마음과 돌아 아니게 내 주장을 그쪽으로 주니까 그분이 고만 나하고 똑같이 일게 됐더라 이거죠. 또 그분이 모른다면 그분 주장자를 내가 뺏아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그 도리를 모른다면 항상 세군에 끄달리지, 영계에 끄달리지, 업보에 끄달리지, 윤회에 끄달리지, 여러분이 그런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그냥 돌아오고 나가는 것도 없이 돌아오고 나가거든요. 영계가 돌아와도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도 모르거든요. 가정을 온통 그냥 막 뒤집어 놔도 그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중생이라 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다 해결하고 복이고 마고, 돌이 아니게 모든 것을 범박위로 등글리고 불박위로 굴러서 새로 생선해서 보살로 회해서 나가도록 해야만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여러분은 고에서 벗어나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중생이라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서 뭐냐? 아까 고거 얘기했죠. 네가 그 마음을 알면 내가 주장자를 줄 것 이므로... 예전에 일체 스님도 그랬어요. “만약에 네 주장자가 없다면 내가 네 주장자를 빼앗을 것이고... 네 주장자가 없다면 일체 모든 세군이나 영계가 털구멍을 통해서 너의 집을 드나들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더라도 너는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도 모르느니라. 내가 네 주장자가 있다면 내가 네게 주장자를 줄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그게 뭘 소리냐? 그 마음이 통하니까, 힘을 저기다가 줘도 저 사람은 그 힘을 악의로써 쓰지 않고 선의로써 방법을 들이고 내면서 보살행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가 행하는 것을 알려면 여러분도 나와 같이 알아야 내 속을 바로 꿰뚫어볼 거 아닙니까? 내가 구름을 타고 다니면서 나쁜 짓을 하는지, 구름도 안 타고 가고 움직이지 않아 돌아다니는지, 무엇 때문에 다니는지 그것도 알 거 아닙니까? 왜 저자가 저렇게 못났는지 그것도 알 거고요. ‘아니, 그렇더라면 저기가 잘 그럭 거리고 나오지 왜 저렇게 못나게 그럭 거리고 나왔어?’ 한다면 내 속을 알아야 왜 이렇게 그럭 거리고 나왔는지 알 거 아닙니까? 내가 민안에 잘 그럭 거리고 나왔다면 난 이러지 못하거든요. 안 그래요? 미안으로 아주 잘생기게 태어났다면 내가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야지요. 차라리 못 그럭 거리고 나오는 게 좋겠지요?

못 그럭 거리고 나왔는데도 집에서 한때는 남이 데리워서 피하게끔 얼굴에 진흙을 발랐거든요. 아때요? 그 방편도 좋죠? 그래서 별에 말리니까 진흙과 같이 말라서 피부가 썩쩍 갈라져서 피가 나오더라

요. 그러니까 모두 “미쳤대. 미쳤대.” 또 그냥 싱글빙글 싱글빙글 하니까 “아, 미친 사람인데 가깝 미쳤나 봐. 그런데 왜 산에까지 올라왔지?” 이러거든요. 만약에 그러하지 않았더라면 키도 크고 미인이었더라면 남 그냥 놔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도 또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 의도대로 마음대로 못했을 거다 이겁니다.

나는 잠깐 동안이라도 안 해 본 게 없어요. 하다못해 멧돌질 키질 모습은 셋가지도 조금씩 안 해 본 게 없어요. 어떻게 하나만 가지고 진뚝 붙들고 멧 해봐 나가겠어요? 잠깐잠깐이지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해 본 바,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그러니까 더 당차지고 믿음이 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각자 자기가 자기를 진짜로 믿고 실험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믿어야 해요. 왜? 자기가 이 세상 에 나왔으니까 있었던 거지 자기가 없는게 뭐 가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너부터 알라.” 이러더니 죽었는지 알습니까? 허허허... 잘못이라고 말입니다. 아까 천도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분들은 천도를 꼭 상을 차려 놓고 해 줘야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니가 잘 잡수고 거서 게 해 드렸으니까 잘했겠지!’ 요렇게 생각한

다 이겁니다. 그런 분들은 차려 놓고 해 주고, 어떤 분들은 “스님, 제 성심으로 부모를 위해서 마음을 냈습니다. 지식으로서 부모한테 해 드린 것도 없고, 또 그렇게 고생만 하셨는데 살 만하니까 돌아가셨으니 이렇게 해 드리는 겁니다. 부모를 위해서. 그러나 천도 좀 시켜 주십시오.” 그러고는 가거든요. “그러면 주소 하고 이름도 써 놓고 가고, 뭐 불경을 해와야지.”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이름도 상도 없이 도 부처님은 아실 거 아닙니까?” 이러는 거야. ‘아, 참! 저이가 부처구나, 하허!’ 이라고선 말입니다. 얼마나 결단이고 웃었는지... 그레 그 돈을 받아서 두 군데 세 군데로 나눠서 누구를 줬 버렸어요. 그냥 줬 버렸죠. 난 그렇게 쓰는 돈이 한 달이면 얼마 돼 될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그냥 그런 거죠. 뭐, 그냥 돌 아갈 뿐이에요. 그냥 움쭉거리길 뿐이고 그냥 말 할 뿐이고 그냥 살 뿐이에요. 모두가 내 형제 아님이 없고 내 지식 아님이 없고 위로는 내

여러분은 각자 자기가 자기를 진짜로 믿고 실험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믿어야 해요

부모 아님이 없으니, 우리가 잠시잠깐 살다가는 것이 저 뜬구름 한쪽 모였다가 흩어지는 거와 같죠. 것처럼 흘러내리는 물과 같고 스쳐 가는 바람과 같고 가을에 나뭇잎 떨어지는 거와 같고 꽃이 피었다 한 잎 두 잎 떨어지는 거와 같은 것이 인생 아닐까요?

그러니 우리가 ‘모른다 인다’ 그걸 떠나서 ‘저 스님은 도인이야, 도인이 아니야’ 이런 것을 떠나서 인간으로서 좀더 진실하게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말을 할 수 있다면 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포 유(祐)의 범으로써 남을 돕는다고 자기 먹을 것도 다 갖다가 주라는 게 아니라 나와 그와 돌이 아니게 생각한다면 바로 내가 풀 수 있는, 풍 한 조각이라도 나뉠 먹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또 마음을 내외 남에게 해롭게 마음을 내지 않는다 이겁니다. 행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행이 없이 무(無), 공(空)에 빠지거나 유(有)에 끄달리거나 이레도 안 되죠. 우의 범으로 물체세계로 크달리거나 그레도 안 되고 무의 세계, 공에 빠져도 아니 되고, 다만 참선을 한답시고 인주해도 아니 됩니다. 이기는 천체가, 변순간에 기도

부처는 거기 있으니 참선이요 아디는 내가 가는 쪽쪽 부처가 그 저리에 있으니까 바로 그것이 참선이라. 그것이 행선입니다. 일체 만법이 다 행선이며 참선이예요. 여러분 생활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면 도를 이루지 못하고 환상천을 넘지도 못하고, 바로 불사천을 넘지도 못하는 것이고 무명천도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본적으로 끄달린다면 말마대사가 양 무제더라 한 말과 같은 겁니다. “나는 절도 짓고 또 불경도 많이 장만해서 스님 네들한테 보시했고 웃도 해 드리고 쌀도 갖다 드리고 그랬는데 공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고 말마 대사한테 양 무제가 물어보니까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처님은 아실 것이니까 우리 아버지 천도시켜주세요.” 하고 갖다준 돈이 바로 그분이 다시 태어날 때 통장을 해 가지고 나오는 그 돈이 꽤 버텼더라 이거예요. 그

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분하고 마음이 돌아 아니게 되어서 그분도 그냥 한참나에 부처의 도리를

알게 됐으니 부처님이 됐고 보살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돈은 그렇게 공덕이 됐으니 그냥 그분의 무의 통장이 돼 버렸어요. 유(祐)의 통장이 아니고 무(無)의 통장 말입니다. 그 무의 통장이 미래의 우의 통장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이 도를 깨쳐서 나올 사람을, 즉 말하자면 미륵보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재림하신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지금 그냥 생활하고 사는 사람들 이라도 마음이 그만큼 그렇게 됐으면 벌써 그 건 보살이요 부처입니다.

바깥으로 끄달리면서 ‘내가 보시를 했으니 까...’ 이러면서 아무개는 얼마 했고 아무개는 얼마 했고 이렇게 주렁주렁 써 붙인다면 어떻게 자기 미래의 통장을 갖겠습니까? 그러면 공덕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건을 사러 가서 ‘이 돈은 내가 줬으니까 내 돈이요.’ 하고 돈을 쥐고 있으면 불건을 주지 않습니다. 돈을 가져와서도 ‘요 돈을 내가 갖다 줬으니까’ 하고 항상 생각하고 있다면 돈 을 못 받았으니까 기계에서 물건 주는 사람이 불건을 안 주죠. 돈을 먼저 보니까만 했지 그게

준돈입니까, 아디? 이거는 ‘아주 너 써라.’ 이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이 시주를 하면서 합이 없이 하지를 앓고 ‘시주를 하면 이 일이 이루어지겠지.’ 요렇게 하고 보시한다면 말입니다. 요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요걸 주고 끝낼래 했다는 거거든요. 줬다고 아주 써 붙여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불건을 가져갈 수가 있어야지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 놓고 또 “나는 이렇게 주인공을 믿고 이랬는데도 안됩니다. 믿었는데도 그렇거든요.” 이러요. 믿긴 뭘 믿었습니까? 세상에 죽고 사는 것도 거기애 놓고 믿어 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기만히 보면 진짜 믿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진짜 믿는다면 내일 죽으면 아평고 오늘 죽으면 아평습니까? 그리고 내 지식이 금방이 저런에서 죽는다면 해도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어떤 사람이 묘지를 쓰고 나서 무척 애통합니다. 그 집안의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고 자식들이 그냥 내리내리 자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소 묘지가 잘 못됐다고 갖다 옮기려니까 돈이 없어서 산을 사지 못하는 거예요. 회장을 시켜 버리던니까 또 가족들이 아탄들이고요. 그래서 “산을 사서 이쪽으로 묻자니 돈이 없고, 그냥 놓아 두자니 저꾸 집안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니 이 일을 아쳐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달려라 그런 소리를 했으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을 잘 들어, 거기에 산소 잘 못됐다고 할 게 아니라 그 의식 자체만 딱 들어내면 그거는 그냥 고깃덩어리라고 흘려버려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탁 오는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주인공에 그냥 놔 버리면 될 것을... 스님, 죄송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그러곤 울면서 가더니 그 뒤에 그 집안이 다시 일어섰어요. 그러니까 마음먹기에 달린 겁니다.

질문하실 분 없으면 그만 일어날까요? 여러분, 앞으로 열심히 해서 재물이거나 또 훗날에도 그렇고, 같은 도반으로서 항상 질문하고 토론 하면서 우리 자유권을 연습시다. 감사합니다.

*위 법문은 1989년 10월 1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mma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거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語 -

